

## 노인죽음교육의 효과 분석: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불안의 매개역할

김 성 희  
(가천대학교)

송 양 민\*  
(가천대학교)

본 연구는 노인교육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전국 5개 도시의 10개 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203명(죽음교육 참여 120명, 죽음교육 비참여 83명)을 모집해 진행하였으며, 죽음교육 참여 그룹에 대해서는 총 17주(매주 한차례, 매회 2시간)의 죽음교육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죽음준비교육을 독립변수로, 죽음불안을 매개변수로,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해 t-test,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은 죽음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둘째, 죽음준비교육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는 죽음준비교육 자체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죽음불안을 매개로 하는 효과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노인의 죽음불안 정도는 교육 참가여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만족도는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독거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죽음준비교육이 노인들의 '활기찬 노화', '건강한 노화', '성공적 노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고, 죽음교육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노인교육, 죽음준비교육,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매개효과

\* 교신저자: 송양민, 가천대학교(ymsong@gachon.ac.kr)

■ 투고일: 2013.1.28    ■ 수정일: 2013.3.8    ■ 게재확정일: 2013.3.15

## I. 서론

경제발전과 국민영양 상태,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은퇴생활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노년기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고령자들에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가족해체 현상으로 홀로 사는 노인독거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의 소외 및 정신건강의 악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시대의 노인 돌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sup>1)</sup>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인간수명 '100세 시대'가 논의되는 시기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교육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죽음준비교육'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게 된다. 인간의 노화현상은 불가피한 것이기에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특히 이러한 두려움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든 노인들이 더욱 많이 느끼게 된다(Hicky, 1976; Posner, 1995)<sup>2)</sup>.

죽음불안(death anxiety)은 일반적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에도 걸림돌이 된다(Kalish, 1975). 이런 측면에서 죽음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사람들에게 죽음의 수용하고 그 의미를 직시하도록 해준다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닥쳐올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서혜경, 2007; 유경 · 송양민, 2011).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50여 년 전부터 죽음준비교육이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활발히 실시될 정도로 역사가 길다(傅偉勳, 1993; Deeken, 1996; Becker,

1) '평생교육' 개념은 1965년 유네스코(UNESCO)의 폴 랑그랑(Paul Lengrand)의 주도로 개최된 성인교육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계기로 하여 확산되었음(김병목 외, 1998).

2) 그러나 Kalish(1975)와 Harris(2007)는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2004). 반면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들이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죽음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다양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김은희 · 이은주, 2009; 오진탁 · 김춘길, 2009).

기존 연구들(현은민, 2005; 임찬란 · 이기숙, 2007; 박지은, 2009; 오진탁 · 김춘길, 2009; 송양민 · 유경, 2011)은 대부분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죽음불안의 변화, 우울 정도의 변화, 정서의 변화,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事前)-사후(事後)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조군 없이 실시되는 사전-사후 분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해 보일 수는 있으나, 감각효과(sensitization), 역사성(history), 성숙효과(maturation)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유승흠, 2005).

이러한 이유로 대조군의 설정이 강조되는데, 죽음교육의 효과를 분석해온 기존 연구들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활만족도와 우울 정도의 변화를 단순히 측정하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층적인 효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등에 대해 죽음교육이 갖는 개별적인 개선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들 사이에 어떠한 매개관계가 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험군-대조군 비교,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죽음교육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의 참여여부가 노인의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죽음불안은 죽음교육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교육의 정의와 관련, 한정란(2005)은 노인들에게 개인의 발달단계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위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고, 김정엽과 이재모(2010)는 사회교육의 하나로써 노인의 생활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 김동배 외(2012)는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노인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교육이 가지는 순기능 중의 하나는 노인들이 겪는 사회병리 현상의 완화이다.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여러 문제들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사회 적응력이 약하다. 그 결과 많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소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Brown, 1996).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들의 사회적응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노인교육이 활성화 되고,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한정란, 2005; Harris, 2007).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교육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다양하다. 이 때문에 노인교육을 분류하는 방식도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조경옥(2004)은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대한노인회 등 노인 단체의 노인교육, 노인복지회관의 교육, 경로당 노인교육, 종교단체의 노인교육, 사회봉사단체의 노인교육, 대학 등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노인교육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조희선과 성혜영(2002)은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①퇴직준비교육 ②죽음준비교육 ③생활교육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 이 연구(조희선·성혜영, 2002)는 프로그램 특성과 관련, ‘퇴직 준비교육’과 ‘생활 교육’은 다소 포괄적이며, ‘죽음준비교육’은 이보다 세밀하며 구체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노인교육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인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교육시행 전후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박석돈(1998)은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감태도, 가정생활태도, 사회생활태도, 여가활동태도에 있어서 노인교육의 효과를 측정된 결과, 네 가지 지표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박영숙(2003)은 서울시 노인들을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노인집단의 생활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 신복기 외(2006)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정도, 노인의 태도 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진희와 김옥(2008)은 심리적 안녕감(고독감,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노인교육이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고독감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김정엽과 이재모(2010)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sup>3)</sup>와 '자아 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김동배 외(2012)는 노인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 증진의 매개효과를 통해 자아통합감을 높여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죽음불안과 죽음준비교육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1927)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sein zum tode)이며 죽음을 떠나서는 삶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죽음과 삶을 이처럼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고, 인간의 죽음을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소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Brown, 1996; Harris 2007).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을 인터뷰했던 정신의학자 Kübler-loss(1969)는 죽음에 접했을 때 사람들은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등 5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처음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부정하고 분노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임박한 죽음에 대해 타협하고 우울해 하다가 결국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년기에 이르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

<sup>3)</sup>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Sarason 외(1990)는 개인이 필요시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엽과 이재모(2010)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 또는 친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아보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지난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절망(despair)에서 벗어나 자아통합(integrity)을 이루며(Erikson, 1982), 반대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불안태도<sup>4)</sup>가 높아지고, 우울증을 겪게 된다(Moody, 2006; Harris, 2007).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죽음준비교육은 노인교육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죽음준비교육이 ‘삶의 교육’, ‘삶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정진홍, 2003). 특히, 우리 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웰다잉(well-dying) 바람이 불고, 존엄사(death with dignity)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죽음준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유경·송양민, 2011). 서강대와 한림대 등 일부 대학들이 죽음준비교육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가 하면, 사회복지관과 평생교육원, 종교기관 등을 중심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죽음교육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죽음교육이 시작된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중년·노년층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傅偉勳, 1993; Deeken, 1996).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일천한 탓으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이현지 외, 2005).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죽음준비 프로그램은 서혜경(1992), 고승덕 외(1999), 현은민(2005), 김숙남 외(2005), 임찬란과 이기숙(2006), 박지은(2009), 오진탁과 김춘길(2009), 송양민과 유경(2011) 등 10여개에 불과하다.

이상의 연구자들은 자체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사전-사후 검증 방법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현은민(2005)은 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임찬란과 이기숙(2006)은 노인 1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죽음교육을 실시한 뒤, 노인들의 죽음불안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생활만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오진탁과 김춘길(2009)은 60세 이상 고령자 38명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 정도가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 때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sup>4)</sup> 죽음불안태도(death anxiety attitude)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와,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서혜경(2007)은 죽음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죽음불안의 실체를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혐오’, ‘죽음의 기피’, ‘죽음의 수용’, ‘죽음의 부정’, ‘죽음의 분노’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였으나, 우울 정도의 변화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또 박지은(2009), 송양민과 유경(2011)은 60~9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한 후, 사전-사후 검정을 통해 정서적 불안과 인지적 수용 태도,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등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해외 연구로는 Trent et al.(1981), Geogemiller와 Maloney(1984), Kawagoe와 Kawagoe(200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Trent 외(1981)의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이 죽음 불안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Geogemiller와 Maloney(1984), Kawagoe와 Kawagoe(2000)의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죽음수용 태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3.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행복감(happiness)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예전에는 국민소득, 취업과 실업, 건강수준, 교육수준 등의 지표가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의 사회·경제 지표로는 이를 나타낼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김명소 외, 2001).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 등이다.

생활만족도의 정의와 관련, 이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Neugarten 외(1961)는 사람들이 매일 수행하는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 대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주관적 만족 수준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또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역시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radburn(1969)은 심리적 안녕감을 자신의 생활, 또는 인생 전반에 대해 스스로 공언하는 행복감이라고 했다(이진희·김옥, 2008 재인

용). 그러나 Ryff(1989)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Ryff는 심리적 안녕감을 정의하면서, 6가지 하위차원- ①자아수용, ②긍정적 인간관계, ③자율성, ④환경에 대한 통제감, ⑤삶의 목적, ⑥개인적 성장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즉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평소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양질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은퇴한 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자존감 상실, 대인관계의 축소, 삶의 목적 상실 등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함께 겪게 된다(Posner, 1995; Moody, 2006; 서혜경, 2007). 죽음교육의 목적은 지난 인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적응력을 향상시켜 남은 삶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정진홍, 2003; 유경·송양민, 2011). 이런 점에서 죽음준비교육이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메커니즘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과 연구척도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대상 죽음준비교육이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와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때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몇 가지 변인을 통제하고 살펴보았다. 통제변인은 선행연구(박영숙, 2003; 이진희·김옥, 2008; 문남숙·남기민, 2008; 박선애·허준수, 2012; 김동배 외, 2012)를 참고로 설정하였다.

또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죽음준비교육 참여여부를 독립변수로, 죽음불안을 매개변수로,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 그림 1. 연구모형



### 가. 죽음교육 참여여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죽음준비교육은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선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받음'과 '받지 않음'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 나. 생활만족도

첫 번째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최성재(1986)가 개발한 척도이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행동에 대한 전망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 3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 문항에 대한 점수는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다'에 3점을 부여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중립적인 답변에는 2점을 부여하였다. 최성재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가 0.79로 나타났다.

## 다.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의 또 다른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가 처음 54개 문항으로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과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24개 문항으로 축소한 김애순과 김범준(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분석에 있어서는 설명의 명확화를 위하여 6가지 세부 영역을 각각 살펴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값을 산출·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애순과 김범준(2007)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67이었다<sup>5)</sup>.

## 라. 죽음불안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죽음불안은 죽음에 대한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불안, 죽음에 대한 수용자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Collett & Lester(1969)가 개발한 죽음불안 척도(fear of death scale; FODS)<sup>6)</sup>를 고승덕 외(1999)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16개의 문항으로 간소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원척도를 16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한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0.70으로 나타났다.

5) 허명희와 양경숙(2001)은 신뢰도 값이 대체적으로 0.8이상이면 상당히 신뢰적인 측정이며, 신뢰도가 0.6 이상인 변수는 아쉬운 대로 쓸 만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6) Collett와 Lester는 1969년에 고안한 36개 문항의 원척도를 1994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03년 이를 32개 문항으로 축소 수정한 척도를 새로 발표하였다. Collett & Lester의 척도는 ①death of self(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 ②dying of self(자신의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 ③death of others(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 ④dying of others(타인의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나뉘어져 있다. 1969년 원척도의 하위 4개 영역별 문항 간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를 보면, death of self 영역은 0.89, dying of self 영역은 0.92, death of others 영역은 0.78, dying of others 영역은 0.92였다.

## 다.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배우자 유무, 독거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되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는 대표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의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종교유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를 ‘ 좋음’과 ‘ 좋지 않음’으로 재구성하였다.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좋은 것으로, 나머지의 경우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관적인 생활수준 역시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매우 넉넉하다’와 ‘넉넉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 좋음’으로, 나머지의 경우는 ‘ 좋지 않음’으로 재구성하였다.

가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유무’와 ‘독거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별을 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독거 여부’에 있어서는 배우자 및 자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혼자 사는 경우를 ‘독거 가구’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식이 있거나 배우자가 생존하더라도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독거가구로 분류하였다. 또 교육의 효과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조사 지역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 2.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존 죽음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학문적 연구를 위해 고안된 탓으로, 교육기간이 대부분 1~5회(매회 1~2시간) 정도에 그치는 단기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간상의 제한 때문에 교육 내용도 죽음의 의미 탐색, 죽음준비, 건강교육, 유언과 상속 등 4~5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단기교육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죽음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총 17회(매회 2시간)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죽음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독일학자 Deeken(1996)과 대만 학자 傅偉勳(1993)은 죽음교육 내용과 관련해, 존엄한 죽음 준비, 안락사의 의미,

표 1.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목표	프로그램 주제	교육 시간	진행내용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마음 열기, 죽음준비의 필요성	2	- 자기소개 - 프로그램 목적 강의	
	나는 누구인가?	2	- 꽃 그림 그리기 - 의견 나눔을 통한 자기 성찰	
	나의 인생 그래프	2	- 나의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 - 지난 삶에 대한 회고	
	죽음의 이해	2	- 죽음의 의미에 대한 교육 - 죽음에 이르는 심리 과정 이해 - 의견 나눔	
	웰다잉 연극단 초청 공연	2	- 연극 관람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 확대	
죽음에 대한 실질적 체험과 관련 정보 제공	유언과 상속	2	- 변호사 법률 특강 실시 - 의견 나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2	- 현재 가족, 과거 가족 소개 - 사진 자서전 꾸미기	
	야외 캠프	버킷 리스트 및 나의 사망기 작성	3	-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작성 - 객관적인 나의 사망기 작성
		영상편지 촬영, 묘비명 쓰기 등	6	- 가족에 대한 영상편지 촬영 - 신체 캐스트(석고주먹 만들기)
	영정사진 촬영	2	- 야외에서 장수사진 촬영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	2	-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해 - 의견 나눔	
	장기기증과 호스피스	2	-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 -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장사 및 장묘시설 견학	6	- 화장장 등 장묘시설 견학 - 의견 나눔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 및 남은 삶에 대한 의지 확보	어르신 봉사활동	3	- 야외에서 봉사활동 전개 - 특별 프로그램	
	유언장 작성	2	- 유언장 작성과 발표 - 의견 나눔	
	건강관리 프로그램	2	-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 게임을 통한 집중력 향상	
	가족초청 행사	3	- 가족초청 행사 진행 - 자서전 및 유언장 낭독 - 가족과 함께 다과 나눔	

예술작품을 활용한 죽음교육, 비탄교육(grief education), 작별편지 쓰기, 장례식 준비하기, 호스피스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총 9회의 노인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오진탁과 김춘길(2009)은 죽음교육에 리빙윌(living will)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도입한 바 있으며, 박지은(2009)은 노인영화 등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제안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촬영, 웰다잉 연극 같은 시청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자의 죽음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죽음에 대한 실질적 체험과 정보 제공’,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의지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 하에 설계되었다(표 1 참조).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5회의 강좌가 구성되었고,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의 기회와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8회의 강좌가 마련되었다. 또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남은 삶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4회의 강좌가 마련되었고, 여기에 1박 2일로 진행되는 2회의 야외캠프 행사가 추가되었다.

### 3.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조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에 소재하는 10개 복지관(서울 6개 복지관, 지방 4개 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총 17주에 달하는 장기인데다, 교육 참여 강사들의 일관성<sup>7)</sup>을 유지하고, 표본 수를 충분히 얻으려 노력한 결과, 조사기간이 길어졌다.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 203명(죽음교육 참여 120명, 죽음교육 비참여 83명)을 모집해 진행하였으며, 죽음교육 참여 그룹에 대해서는 총 17회(매주 한 차례, 매회 2시간) 죽음교육을 실시하였다.

죽음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10~30명의 실험군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실험군 표본 수는 120명에 이르고 있다. 표본 수를 120명으로 확대한 것은 죽음교육의 효과가 소집단이 아닌 대집단에서도 확인되는 지를

<sup>7)</sup> 서울 지역 복지관에서는 동일한 강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방 복지관은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를 파견하여 죽음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17주짜리 장기 프로그램이어서 동일한 강사가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이다. 실험군은 해당 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60세 이상 노인들과, 죽음준비교육 홍보물을 읽고 찾아온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조군은 편의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또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수집한 설문지를 검토하여 일부 답변이 누락된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4. 분석방법

실증 분석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의 실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죽음불안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른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살펴본다. 둘째, 죽음준비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을 실시한다. 주요변수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도 병행한다.

셋째,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과 죽음준비교육의 관계에서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test를 실시한다. 죽음불안이 매개변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sup>8)</sup>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용 통계프로그램으로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한다.

8) Baron과 Kenny(1986)는 매개효과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통제되었을 경우, 기존에 유의하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Baron과 Kenny(1986)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번에 걸쳐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 ①독립변수 → 매개변수, ②독립변수 → 종속변수, ③매개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①과 ②는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야 하고, ③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②에서 확인된 것보다 작은 영향력을 보이거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①, ②, ③의 기호를 사용해 순차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와의 기전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의 결과

###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가 148명(72.9%), 남자가 55명(27.1%)으로 여자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 분포는 70대가 103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60대로 84명(41.4%)이었다. 80대 이상은 조사 대상자의 10%에 약간 못 미치는 16명(7.9%)에 그쳤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84명(41.4%)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가 119명(58.6%)으로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이 다소 많은 편이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164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8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은 38명(18.8%)이었다. 조사 대상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은 모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115명(57.8%)으로 좋다고 여기는 사람(84명, 42.2%)에 비해 약간 많았다.

자신의 '생활수준'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161명(80.5%), 좋은 편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39명(19.5%)으로, 다수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가구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우자 유무'와 '동거 여부'를 확인한 바,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86명(42.4%)이었다. 반면, 동거 여부를 떠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이보다 약간 많은 117명(57.6%)에 이르렀다. 한편, 현재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153명(77.3%), 그렇지 않은 경우가 45명(22.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하는 '죽음준비교육' 실시 여부에 있어서는 분석 대상자 중 120명(59.1%)이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집단에 속하며, 83명(40.9%)은 죽음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해당된다.

표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N=203)

구분		빈도(명)	분포(%)
성별	여자	148	72.9
	남자	55	27.1
연령	60대	84	41.4
	70대	103	50.7
	80대 이상	16	7.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9	58.6
	고졸 이상	84	41.4
종교 유무	없음	38	18.8
	있음	164	81.2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	115	57.8
	좋음	84	42.2
주관적 생활수준	좋지 않음	161	80.5
	좋음	39	19.5
배우자 유무	없음	86	42.4
	있음	117	57.6
독거 여부	독거 아님	153	77.3
	독거	45	22.7
지역	서울	121	59.6
	기타 지역	82	40.4
죽음준비교육	미실시	83	40.9
	실시	120	59.1

주: 결측치는 제외함

## 2. 죽음준비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수준 차이

조사대상자의 ‘죽음불안’의 정도는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집단의 죽음불안의 정도는 2.81점이었으며, 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3.16점이었다.

‘생활만족도’는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집단은 2.43점, 그렇지 않은 집단은 2.27점으로 교육을 받은 집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교육 수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으며, 교육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각각 3.49점, 3.34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sup>9)</sup>

표 3. 죽음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구분	죽음교육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죽음 불안	실시	120	2.81	0.459	-5.904***
	미실시	83	3.16	0.362	
생활 만족도	실시	120	2.43	0.339	3.224**
	미실시	83	2.27	0.366	
심리적 안녕감	실시	120	3.49	0.380	2.840**
	미실시	83	3.34	0.357	

\*: P<0.05, \*\*: P<0.01, \*\*\*: P<0.001

### 3.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은 매우 유의한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표 4. 주요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구분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죽음불안	1	-0.180**	-0.237***
생활만족도		1	0.488***
심리적 안녕감			1

\*: P<0.05, \*\*: P<0.01, \*\*\*: P<0.001

<sup>9)</sup> 죽음교육을 실시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죽음불안은 3.24점, 생활만족도는 2.21점, 심리적 안녕감은 3.31점이었으며, 이는 죽음교육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죽음교육을 실시한 집단의 사전 조사 점수는 죽음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의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매개변수인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逆)의 상관을 보였다. 즉, 죽음불안이 클수록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

#### 4.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

노인의 죽음준비교육과 ‘생활만족도’, 죽음준비교육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세 단계에 걸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계수와 VIF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상관관계는 0.6이하로, VIF 값은 2이하로 나와 다중공선성이 없었으므로, 선정된 모든 변수를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10)</sup>(표 5 참조).

표 5.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69	1									
3	.027	-.297 ***	1								
4	.366 ***	.048	-.134	1							
5	-.024	.030	.094	.042	1						
6	.096	-.025	.047	.073	.007	1					
7	.121	.079	-.044	.144*	-.057	.399 ***	1				
8	.276 ***	-.087	-.156*	.295 ***	-.184 **	.104	.163*	1			
9	-.170*	.049	.105	-.211 **	.143*	-.021	-.085	-.572 ***	1		
10	.231 ***	.052	-.020	.345 ***	.170*	-.055	-.062	.127	-.131	1	
11	.101	.102	.057	-.034	.010	.054	.077	.017	-.113	.010	1

<sup>10)</sup> 상관계수가 0.80이상인 경우(Knoke 외, 2002), VIF값이 10이상이면(성내경, 2004) 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죽음교육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죽음준비교육’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죽음불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죽음불안’을 25.2%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개별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바, 독립변수인 ‘죽음준비교육’이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죽음불안의 정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외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지역’ 등의 몇 가지 통제변인도 죽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죽음불안의 정도가 낮았다. 자신의 건강수준이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죽음불안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기타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밖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에 있어서 70대는 60대에 비해서 죽음불안의 정도가 낮았으나, 80대는 60대에 비해서 죽음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죽음교육과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죽음준비교육’과 매개변수인 ‘죽음불안’을 독립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㉔)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생활만족도를 21.6%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개별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바, 매개변수인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죽음준비교육’ 자체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죽음준비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립변수인 ‘죽음준비교육’은 ㉔모형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㉕모형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죽음준비교육’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이를 매개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관적 생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성별', '독거 여부' 등의 통제변수는 모형③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독거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 다. 죽음교육과 죽음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죽음준비교육'과 매개변수인 '죽음불안'을 독립변수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③)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14.2%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개별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바, 매개변수인 '죽음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죽음준비교육' 자체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죽음준비교육'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죽음불안'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립변수인 '죽음준비교육'은 ②모형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③모형에서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죽음준비교육'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고, 이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인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설명변수를 살펴볼 수 없었다.

표 6.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N=203)

구분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Beta (a)	Beta (b)	Beta (c)	Beta (d)	Beta (e)	
통제 변수	성별	여자§					
		남자	-.186 *	-.118	-.159 *	-.023	-.061
	연령	60대§					
		70대	-.008	-.026	-.028	-.011	-.013
		80대 이상	.041	.026	.036	-.132	-.124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이상	-.073	.023	.007	.047	.032
	종교유무	없음§					
		있음	.012	.045	.048	.003	.005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					
		좋음	-.146 *	.059	.027	.101	.071
	주관적 생활수준	좋지 않음§					
		좋음	.134	.268 ***	.297 ***	.070	.096
	배우자 유무	없음§					
		있음	.151	.039	.073	.043	.073
	독거여부	독거 아님§					
독거		-.071	-.151	-.167 *	.073	.059	
지역	기타 지역§						
	서울	.191 **	.031	.074	-.173 *	-.135	
독립 변수	죽음 준비교육	미실시§					
		실시	-.386 ***	.195 **	.109	.196 **	.118
매개 변수	죽음불안 (연속)			-.223 **		-.201 *	
		F=5.453*** R2=.252 Ajd R2=.206	F=3.531*** R2=.179 Ajd R2=.128	F=4.070*** R2=.216 Ajd R2=.163	F=2.028*** R2=.111 Ajd R2=.056	F=2.433*** R2=.142 Ajd R2=.083	

주: 1) \*: P<0.05, \*\*: P<0.01, \*\*\*: P<0.001

2) §: 준거집단

## 라. 매개효과 검정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test<sup>11)</sup>를 실시한 결과(표 7 참조), ‘죽음준비교육’과 ‘생활만족도’, ‘죽음준비교육’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죽음불안’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Sobel test 분석 결과

구분	a (SEa)	b (SEb)	Zab
죽음준비교육 → 죽음불안 → 생활만족도	-.353 (.061)	-.179 (.062)	2.59**
죽음준비교육 → 죽음불안 → 심리적 안녕감	-.353 (.061)	-.169 (.068)	2.29*

\*: P<0.05, \*\*: P<0.01, \*\*\*: P<0.001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은 ‘죽음불안’ 수준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통제변인)을 비롯한 ‘죽음준비교육’이 ‘죽음불안’을 25% 이상 설명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죽음준비교육 실시여부에 따

11) sobel test 계산공식(Sobel, 1982)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여기에서, a: 비표준화계수(독립변수 → 매개변수)

SEa: a의 표준오차

b: 비표준화계수(매개변수 → 종속변수)

SEb: b의 표준오차

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준비교육의 죽음불안 태도 및 죽음수용 태도의 개선 효과를 살펴본 기존연구(Georgemiller & Maloney, 1984; Kawagoe & Kawagoe, 2000; 고승덕 외, 1999; 김숙남 외, 2005; 현은민, 2005; 오진탁 · 김춘길, 2009, 박지은, 2009), 그리고 생활만족도 향상 효과를 살펴본 연구(Trent et al., 1981; 임찬란 · 이기숙, 2006), 심리적 안녕감 개선 효과를 살펴본 연구(송양민 · 유경, 2011)와도 일치한다.

둘째, 죽음교육을 받은 후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개선된 것은 죽음교육 자체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교육 실시에 따른 '죽음불안'의 감소에 의한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에 해당되는 죽음불안의 매개효과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노인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업이다.

노인복지의 목적이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본다면, 죽음교육의 활성화는 죽음불안 완화를 매개로 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연구는 아니지만, 문남숙과 남기민(2008)은 정신적 죽음준비도(death preparation)의 증진이 우울 및 죽음불안 감소의 매개효과를 통해 노인들의 자아통합감(ego integrity)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복지투자를 늘려오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사회서비스의 개발은 활발하게 이뤄져왔다. 반면 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부족한 실정이다.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앞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닌,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인죽음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뤄져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추가적으로 통제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죽음불안'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노인의 죽음불안이 여자노인보다 낮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이뤄진 기존 연구(서혜경, 1987; 최외선, 2007; 박선애 · 허준수, 2012)와 같았으나, 일부 국내연구(김태현 · 손양숙, 1984)와 해외연구(Keith, 1979)에서는 여성의 죽음불안이 더 낮거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죽음불안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질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기존연구들(서혜경, 1987; 최외선, 2007)과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죽음의 불가피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전에 죽음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죽음교육의 '생활만족도' 개선 정도는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독거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독거가구의 경우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자신의 생활수준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이진희와 김옥(2008)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거나, 생계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물질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고취시켜준다면 전체적으로 행복한 사회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이진희·김옥, 2008)를 통해 밝혀진 것과 같이, 교육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죽음교육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장수(長壽) 노인의 증가는 축하할 만한 일이나, 개인적으로는 만성질환 때문에 불건강하게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와 복지비용의 급증을 초래함으로써 인구고령화를 재앙(災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WHO와 OECD 등은 '활기찬 노화(active aging)',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정형선 외, 2007). 노인들이 평생교육과 사회활동,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



다. 죽음불안을 완화하여 고령자들에게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하고, 또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죽음준비교육의 활성화는 이런 점에서 '활기찬 노화', '건강한 노화',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죽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을 보다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커리큘럼 만족도와 교육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에서, 죽음교육은 죽음불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엄밀한 평가를 통한 피드백(feed-back)이 뒷받침되어야만 좋은 교육 도구의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표본이 동일 시점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 수집부터 최종 수집까지 1년 이상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문항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른 편차가 작동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층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은 문항 수는 '응답의 회피' 또는 '불성실한 응답'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차원에서 겉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응답의 편향성과 편이 추출의 한계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의 이유에서 가치를 보인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죽음교육이 단편적으로 죽음불안의 정도를 줄이거나,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전-사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교함이 떨어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활용하여 교육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또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서 변인 간의 관계(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죽음불안과 심리적 안녕감)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승덕, 김은주, 김영규(1999). 노인의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의 불안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2), pp.81-92.
-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2012). 노인평생교육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3), pp.801-817.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pp.19-39.
- 김병목, 김옥경, 정복철(1998). 평생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평생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행정문제연구*, 5(1), pp.117-153.
- 김숙남, 최순옥, 이정지, 신경일(2005).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2(2), pp.141-153.
- 김애순, 김범준(2007). 중·노년기 라이프 밸런스와 심리적 안녕감. 2007년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엄 발표집.
- 김은희, 이은주(2009).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9(1), pp.1-9.
- 김정엽, 이재모(2010). 노인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8, pp.7-30.
- 김지현, 민경환(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pp.11-27.
- 김태현, 손양숙(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4(1), pp.3-19.
- 문남숙, 남기민(2008).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pp.1227-1248.
- 박선애, 허준수(2012). 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pp.59-88.
- 박석돈(1998). 노인의 욕구변화와 노인교육. *노인학연구*, 2, pp.1-29.
- 박영숙(2003). 노인 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1, pp.99-121.
- 박지은(2009).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정서·인지·행동에 미치는 효과. *사회복지실천*, 8, pp.79-109.

- 서혜경(1987).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7, pp.39-58.
- 서혜경(1992). 죽음을 준비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언. *한국노년학연구*, 1(1), pp.11-17.
- 서혜경(2007). 죽음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죽음불안도 4가지 영역에 따른 노년층과 비노년층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1), pp.109-125.
- 성내경(2004). *SAS/STAT 회귀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송양민(2010). *밥 돈 자유-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파주: 21세기북스.
- 송양민, 유경(2011).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54, pp.111-134.
- 신복기, 성향숙, 김수영(2006).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34, pp.313-336.
- 오진탁, 김춘길(2009).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29(1), pp.51-69.
- 유승흠(2005). *보건학 연구방법과 논문쓰기*. 서울: 계축문화사.
- 이진희, 김옥(2008).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4), pp.887-905.
- 이현지, 이윤주, 조계화(2005). 휴먼서비스 학문 분야의 죽음교육에 관한 교과내용분석과 욕구조사. *노인복지연구*, 30, pp.263-286.
- 임찬란, 이기숙(2006). 노인대상 죽음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pp.123-150.
- 장상희, 이상문 역(2007), *사회통계학*, Knoke, D., Bohmstedt, G. W., Mee, A. P.(2002), *Statistics for social data analysis*, 서울: 교우사.
- 전병술 역(2001), *죽음, 그 마지막 성장*, 傅偉勳 (1993), *死亡的尊嚴與生命的尊嚴*, 서울: 궁리.
- 전양범 역(1992), *존재와 시간*, Martin Heidegger(1927), *Sein und Zeit*, 서울: 동서문화사.
- 정진홍(2003). *만남, 죽음과의 만남*. 서울: 궁리.
- 정형선, 송양민, 이규식(2007).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1). pp.95-116.

- 조경옥(2004). 노인교육과 사회관계, 생활만족에 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23, pp.127-156.
- 조희선, 성혜영(2002). 노인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생활과학*, 5, pp.245-254.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 pp.233-258.
- 최희선(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4), pp.755-773.
- 한정란(2005).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명희, 양경숙(2001). *SPSS다변량자료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현은민(2005). 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pp.31-56.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rown, A. S. (1996). *The Social Process of Aging and Old Age*.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ill.
- Becker, C. (2004). 현대문화와 학교 안의 죽음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연구*. 19, pp.23-38
- Collett, L. J.,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2), pp.179-181.
- Deeken, A. (1996). 死とどう向きき合うか. 東京: NHK ライブラリー.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Georgemiller, R., Malloney, H. N. (1981). Group Life Review and Denial of Death. *Clinical Gerontologist*, 2(4), pp.37-49.
- Harris, D. K. (2007). *The Sociology of Aging*. Lanham: Rowman & Littlefield.
- Kalish, R. A.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Monterey: Brooks/Cole Publishing.
- Kawagoe, H., Kawagoe, K. (2000). Death education in Home Hospice Care in Jap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16(3), pp.37-45.

- Keith P. M. (1979). Life Changes and Perceptions of Life and Death among Older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4(6), pp.870-878.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Posner, R. A. (1995). *Aging and Old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pp.1069-1081.
- Sarason, I. G., Sarason, B. R., Pierce G. R. (1990). Social Support: The Search for Theory.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9(1), pp.133-147.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pp.290-312.
- Moody H. R. (2006). *Aging*. Thousand Oaks: Pine Forge.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p.134-143.
- Trent, C., Glass, S. C., McGee, A. Y. (1981). The impact of workshop on death and dying on death anxiety, life satisfaction, and locus of control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Death Education*, 5, pp.157-173.

김성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학 학사, 가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 죽음교육 등이다.

(E-mail: shksong23@naver.com)

송양민은 벨기에 루뱅대학교에서 유럽학 석사학위,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정책, 고령사회, 베이비붐 세대 등이다.

(E-mail: ymsong@gachon.ac.kr)

#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ath Anxiety

**Kim, Sung Hee**  
(Gachon University)

**Song, Yang Min**  
(Gachon University)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One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death education which is widely regarded as the important part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The other is to identify systematically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education intervention were held in the 10 Social Welfare Centers in 5 citi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203 elderly(120 participants, 83 non-participants) aged 60 years over, and the 17-weeks death education(2 hours for 1 time per week) was performed towar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model, death education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with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dependent variables, while death anxiety were set up as a mediating variable, respective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Sobel test, with PASW statistic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ath education contributes to lessening death anxiety,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death educ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ut, the influence was confirmed as a mediated effect of lessened death anxiety, rather than death education itself. Thirdly, older adults' death anxiety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subjective standard of health status, and regions. Life satisfaction also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and living alone.

**Keywords:** Education for the Elderly, Death Education, Death Anxiety,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ed Effect